

우리 동네 기후변화 정보 버스정류장에서 제공한다

전주기상청·농진청·전북환경청·전주시·완주군 협업 콘텐츠 제작·농업 기후변화 영향자료·시설물 운영 등

전주기상청(지청장 김병춘)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 전주시(시장 김승수),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협업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기후변화 정보서비스를 17일부터 운영한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기후변화 정보는 전북도민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북지역 소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전주기상청장은 콘텐츠 제작을 주관했고,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기후변

화 영향자료를, 전북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 캠페인·온실가스 홍보자료를, 전주시청은 기후변화 정보 분석 및 콘텐츠 디자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정책 참여를 통해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기후변화 콘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전주역 마중길, 한옥마을 등 버스정류장(25곳), 전주시 시내버스 408대(수소전기버스 15대 포함) 123개 곳, 완주 56곳 등에서 기후변화에 관

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현황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미래전망 ▲기후변화 정책자료, ▲기후변화 이슈·경향 등 5개 분야다. 전주 기상지청은 이를 활용해 ‘탄소중립’ 캠페인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법, 기후변화 상식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할 계획이다.

전주기상청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기후변화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정보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돼 기후위기의식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은 지난 13일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한우고기 활용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우고기 활용 제품 개발 최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전문가 자문회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은 지난 13일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한우고기 활용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CI프레쉬웨이 문종석 CI대표이사과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제 단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화학 더윈푸드 정영수 전무이사, 한국연구재단 조영철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자문회의에서 사업단은 홍콩 소비자 맞춤형개발 제품인 한우 소스 및 한우고기죽, 한우 함박스테이크 등의 향후 수출 확대와 제품 마케팅 등을 위한 식품 유통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했다.

본 회의에 참여한 문종석 CI프레쉬웨이 CI대표이사는 “한우고기 활용 가공제품개발은 대한민국의 한우뿐만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전략으로 보여지며, 향후 홍콩 이외의 해외 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윈푸드 정영수

전무이사는 “사업단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한우고기 함박스테이크에 이은 한우고기 프리미엄 족제비 개발이 향후 및 신규시장 수출 확대에 이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은 코로나 19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식품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한우고기 HMR 가공제품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한우고기 전용소스 4종, 한우고기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한우고기 프리미엄 족제비 2종을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승제 단장은 “본 회의 결과를 기반삼아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의 한우고기 활용 제품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 수출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로 한우고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SK OIL & LPG카드’ 출시

전북은행, 기념 이벤트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17일 주요 특화카드인 SK OIL & LPG 카드’를 출시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출시 기념으로 1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후 1회 이상 사용 시 SK주유(충전권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웰컴 이벤트’도 진행한다.

SK OIL & LPG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전국 SK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50원 청구 할인되며, 전북지역의 경우 리터당 70원 청구 할인이 추가돼 최대 12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 시 월 3회, 최대 주유금액 10만원 한도로 SK주유소와 충전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SK OIL & LPG 카드로 주차장에서 전당 2천원 이상 사용 시 월 2회 10% 청구할인되며, 세차장 자동차정비, 대형마트, 카페에서 전당 1만원 이상 약국은 전당 5,000원 이상 사용 시 5% 청구 할인을 월 2회 받을 수 있다. 해당 생활 할인 서비스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은 월 최대 5,000원, 70만원 이상은 월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원, 국내외겸용 1만5,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www.jtbn.co.kr), 콜센터(☎588-4477), 뉴스마트뱅킹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

현대차, 글로벌·아세안 H-Experience 인턴 모집

현대차가 국내외 인재들에게 다양한 직무 탐색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자동차는 3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인턴십(Global H-Experience) 및 아세안 인턴십(ASEAN H-Experience) 지원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사업 및 미래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아세안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턴십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인턴십의 경우 ▲자율주행 ▲연료전지 ▲신행기술 ▲로봇틱스 ▲AI ▲UAM ▲빅데이터 ▲신사업 전략 등 24개 부문, 아세안

인턴십은 ▲해외 완성차 판매 ▲해외 법인지원 ▲시장조사 ▲품질교육 ▲생산기술개발 ▲경영지원 등 13개 부문이다.

글로벌 인턴십의 모집 대상은 국내의 학/석사 기졸업자 또는 재/휴학생, 박사 재/휴학생(기졸업자 제외)이다. 아세안 인턴십은 아세안 국적자로 국내의 학/석사 기졸업자 또는 재/휴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인원은 7월부터 약 2개월간 국내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최종 면접의 기회를 얻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차, 글로벌·아세안 H-Experience 인턴 모집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

농진청,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으로 재해예방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과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가운데 정책적 중요성, 성과우수성, 예산 집행률, 제도개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6개 부처 257개 사업 중 우수 등급은 48건(20%)이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다량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이 2020년에 추진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 성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76개 시·군)의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전보다 52.3% 향상되고, 농작업 재해발

생은 사업 전보다 5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진청은 농업인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철 야외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원 대상 과제교육 시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박경화 과장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국민연금-가스안전공사 ‘타이머’ 무료 설치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안전카드 기 ‘타이머’ 무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9 장기화에 따라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고령층의 가스 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타이머는 음식물 조리 시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로, 공단은 지난해 7월 전북지역 연금수급자 80가구에 11월 기초연금수급자 40가구에 가스안전카드를 무료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6월부터 타이머를 무료 설치를 연간 4,000가구에 지원해 2023년 12월까지 전국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만2,000가구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단은 대상자 선정과 접수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타이머’ 설치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참여 중기 모집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케이(K)-비역·바이오업종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51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비관세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지역사회 발전·이웃사랑 실천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신규직원들과 임신후국원 참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7일 전북본부 임직원, 농협 임직원, 임직원 가족, 신규직원 13명과 함께 국립 임신후국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선열의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후국원 참배는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영업점 근무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의 업무적응에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댄서로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 본부장은 “신규직원들이 농협은행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에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가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농협, 초중고 150명에게

장학금 3000만원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7일 도내 농촌지역 초·중·고교 학생 150명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장제농협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은 장제면의 중학생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정재호 본부장, 과장을 비롯해 장제농협 조합장, 장경환 장수군지부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장학금 수혜를 받은 청소년들이 좀 더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라고 지역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열대겨세미나방 성충 포획… 이달 하순부터 유충 피해 발생 예상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옥수수 등 벼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열대겨세미나방의 비래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하여 정읍 등 4개 시·군의 옥수수 밭을 중심으로 페로몬트랩을 설치하고 1주일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고창에서 성충이 포획됐다고 17일 밝혔다.

열대겨세미나방은 비를 타고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날아오는 해충으로 5월 7~11일 사이에 전남과 경남에서 성충이 채집됐는데 도내에도 이 시기에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열대겨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다. 2018년 아프리카, 2018년 동남아시아에 이어 2019년 중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장거리 이동성 해충으로 300여종의 식물을 기해하는 데 특히 옥수

수, 수수, 조 등에서 유충이 잎과 싹초를 흡착하고 때로는 줄기와 이삭까지 가해하는 등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국내에는 2019년부터 비래가 확인되었고 2020년에는 전국 30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5월 하순 이후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의 옥수수에서 유충 피해가 발생했는데 빠른 예찰과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북농업기술원 문형철 박사는 금년에 열대겨세미나방의 비래가 5월 중순에 확인됨에 따라 2020년과 비슷하게 5월 하순경부터 작물 피해가 예상되므로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충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예찰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유충 발생 유무를 잘 살펴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희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9’로